畵靑磁至正二年詩銘甁

鄭 良 謨

麗代磁器의 銘文은 靑磁·象嵌靑磁·畵靑磁·白磁 等에 보이는 바이고 그中에 詩銘은 詩自體가 하나의 운치 있는 수식으로써도 재미 있는 것이라 하겠다。靑磁로서는 國立博物館所藏의 象嵌靑磁詩銘菊花文甁을 비롯하여 數例를 算할 수 있다。여기 紹介하려고 하는 것은 詩銘과 아울러 年號月日과 人名이 씌어진 것으로 製作年代를 아울러 알 수 있는 것이다 甁의 形態는 언뜻보아 高麗中期以後에 흔히 볼 수 있는 例이나 肩部와 底部 그리고 굽의 手法에 좀 色다른 點을 볼 수 있다。口緣部가 비스듬이 벌어져 올라가다가 그 끝이 若干 外反되어 比較的 야무지게 마물려졌으며 여기서 훌쭉하게 목이 내려왔으나 약간 벌어지다가 일단 그치고 거의 水平으로 左右로 넓어져서 肩部를 이루고 있다。여기서 다시 둥구스름하게 내려가 胴部를 이루었으며 다시 胴部의 밑에서 水平으로 안으로 짤려 들어가 底部를 이루었고 그밑에 造出한 굽이 比較的 힘차게 맺어져 있다。불룩하고 몽당해 보이는 胴部의 一面에 『明月出天山、□茫雲海間』이라 五言詩 두 귀를 큼직하게 쓰고 다른 一面에 『至正二年三月三日』이라 쓰고 그옆에 『李柱』라고 씌여 있다。모다 黑色의 赭土로 씌어진 이 銘文은 兩面이 모두 또박또박 같은 체로 씌여졌고 『貪花自謂三春小』① 詩銘人 靑磁蒲柳文酒甁에서 보는 운치있는 筆致가 아니다。至正二年은 忠惠王復位三年 西紀로 一三四二年이니 高麗는 黃昏이 짙은 元이나마 그 억압下에 시달리고 國運이 아주 기울어 지던 때이다。主人公 李柱는 高麗史에 同名②이 몇군데 보이나 모다 至正二年과는 거의 한세기나 相距가 있는 高宗——元宗間에 보이므로 어떠한 人物이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詩作者와 關聯을 지어서 『崔元』③『沙籠介』銘甁의 例에서와 같이 地方官이나 中央의 下級吏員이 아니었던가 한다。形態나 銘文 等에서 몇 가지 注意하여야 할 이 甁은 鼠色의 硬質胎土에 굽밑의 露胎는 鐵呈色이며 口緣部의 一部破損에서 雜物이 거의 없음을 살필 수 있다。釉藥은 帶黃暗綠釉가 全面에 고르게 씌여졌으며 光澤이 있고 上部가 酸化되어 白色으로 아주 透明하여 바로 胎土를 對하는 듯하여 氷裂이 뚜렷하다。頸部에 陰刻의 二條帶線이 있고 肩部엔 雜物과 砂粒이 떨어져 釉藥위에 박혀 있다。

口徑八·六㎝ 高二五·九㎝ 胴一五·〇㎝ 굽徑八·四㎝(李洪根氏所藏)



註

① 古蹟圖譜 八、三六九四 高麗陶磁의 研究 二九頁

② 高麗史 卷二十四 世家二十四高宗 四十年 八月
九九 傳十二 崔盈條
百六 傳十九 嚴守安條
百二八 傳四一 曹元正條
百二九 傳四二 崔沆條

③ 本誌 四卷 三號 崔元銘靑磁象嵌梅甁

資 料

石窟重修上棟文(註)

鄭 明 鎬

聞夫。彌陀窟金剛臺。供是重新之淨土。兜率宮銀色界。孰非改觀之祇園。只取苟完。可期牽補。粤若佛國之石窟。實維羅代之伽藍。良工雕琢。呪如水晶之城。寶相端嚴。儼然閣崛之域。肇從甚深之筑教克。覩磅礴之梵宮。擬